

지불보상제도가 의료제도에서 사실상 핵심에 해당함은 아무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불보상제도는 의료비의 규모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의료제도를 볼 때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의 의료제도보다는 사회보험방식(NHI)의 의료제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이들 제도의 차이가 지불보상제도의 차이를 규정하고 그러한 지불보상제도의 차이가 의료서비스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까지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 「정책과 쟁점」의 주제는 “신(新)포괄수가제도의 발전방향”입니다. 작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신포괄수가 모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정제혁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 강중구 일산병원 외과의,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주었습니다. 금번의 논의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각 계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평포럼 토론편」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2월19일 개최했던 심평포럼에서 제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실었습니다.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7가합8006 판결’을 다룬 것입니다. 위법성에 대한 법학적 개념과 이것이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미묘한 갈등을 엿보게 하는 내용으로, 학문적인 관심도 불러일으키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입니다. 심평포럼도 성황리에 진행되었지만 게재된 글들이 향후의 사회적인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HIRA연구」에서는 정책과 쟁점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일본에서 확대일로에 있는 일당지불제로서의 ‘DPC포괄수가제’의 현황을 소개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분석 결과”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의 중점 내용을 소개합니다.

「해외동향」은 일본 호수피스 수가제도를 소개한 지난 호에 이어 미국 메디케어에서의 호스피스 지불제도를 소개합니다. 아울러, 네덜란드의 선진의료 질 관리체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2007년과 2008년의 2개년의 심사결정분을 중심으로 “신경계 질환 진료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령인구에서 발병률이 높은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 형 선